

김혜순 시의 시적 공간

— ‘서울’을 중심으로

박 영 우(경기대)

〈목 차〉

1. 머리말
2. ‘유리문’ 안에 갇힌 내부 공간으로서의 서울
3. 소통 공간으로서의 ‘서울길’
4. ‘몸’과 ‘모래성’이 육화된 공간으로서의 서울
5. 맺음말

1. 머리말

김혜순 시인은 『또 다른 별에서』(1981)를 시작으로 『아버지가 세운 허수 아버지』(1985), 『어느 별의 지옥』(1988), 『우리들의 陰晝』(1990), 『나의 우파니샤드, 서울』(1994), 『불쌍한 사랑기계』(1997), 『달력 공장 공장장님 보세요』(2000) 『한 잔의 붉은 거울』(2004), 『당신의 첫』(2008)에 이르기까지 9권의 시집을 냈다. 등단 이후 대개 3,4년을 주기로 시집을 꾸준히 만들어내고 또한 새로운 시집이 나올 때마다 나름대로의 실험적이고 낯선 시적 전략을 선보이며 자신의 시적 성채를 단단하게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1980, 90년대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여성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해 여성의 ‘몸’이나 ‘육망’ 등의 문제를 기존의 전통적 서정

성을 배제한 자유롭고 신선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독자적인 시 창작 방법을 보여줌으로써 그의 시 세계를 다양화시키고 있다.

그런 점에서 김혜순의 시세계는 적절한 하나의 의미망으로 해석되고 나면 더 이상의 해석의 여지가 별로 없게 되는 그런 단일성의 세계가 아니라 때로는 상반되는 것들까지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해석의 공존이 가능한 복합성의 세계¹⁾를 표현하기에 전통적 서정시의 독법으로 읽기에는 매우 난해하다. 이 점은 시인의 중요한 시적 전략이며 시의식을 형상화시켜내는 표현상의 특성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의 특성은 시인의 시의식과 시적 상상력이 어떠한 시적 공간과 시적 정황 속에서 적절히 교합되어지느냐에 따라 시적 효과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시인이 공간을 구성하고 조직한다는 것은 공간에 어떤 기능을 부여하는 것만이 아니라 생명과 질료와 숨결을 투사하는 일이다.²⁾ 시집 『나의 우파니샤드, 서울』 서문에서 시인이 “나는 다시 내 영킨 몸을 풀어, 그대 발 아래 삼겹사슴의 길을… 그 누구도 아닌 그대들에게, 이 도시의 미궁에 또 길 하나 보태느라 분주한 그대들에게 이 시집을 바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시집은 거대 도시 ‘서울’을 중요한 시적 공간으로 삼고 있다. 그의 시를 통해 표현되고 있는 ‘서울’은 시인의 시의식이 내면화된 공간이자, 고립되고 내면화된 세계에서 빠져나와 세계 또는 타자와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또한 시적 대상이나 공간을 자아와의 합일화, 동일화를 통해 또 다른 시적 구도와 형상을 만들어내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는 ‘서울’이라는 시적 공간을 가장 특징적이고 두드러지게 형상화시키고 있는 『나의 우파니샤드, 서울』을 주요 텍스트로 삼아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이 시집에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시적 공간인 ‘서울’이 어떠한 시적 전략으로 시인의 시의식과 맞물리면서 형상화되고 있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1) 성민엽, 「몸의 시학, 역동적인 에로스」, 『나의 우파니샤드, 서울』(해설), 문학과 지성사, 1994, 132면.

2) 김화영, 『문학 상상력의 연구』, 문학동네, 1998, 381면.

2. ‘유리문’ 안에 갇힌 내부 공간으로서의 서울

문학작품을 공간 혹은 공간성의 문제로 파악하려는 시도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배경적 요인으로서 공간이 작품의 의미를 얼마나 의미 있게 확장하는가에 대한 탐구로 볼 수 있다. 즉 작품 내에 드러나는 공간은 단순한 소재의 차원을 넘어서 그 자체로 하나의 상징이며, 동시에 작품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현현하는 효과를 지님으로써 작품 이해의 현재성을 재고하는 요인이 된다.³⁾ 특히 김혜순 시에서의 시적 공간은 단순한 시적 의장(意匠)으로서의 공간이라기보다는 그의 시적 방법론에서 알 수 있듯이 시의식과 시인의 내면의식이 밀착되고 일체화되어 살아가는 공간으로 사용됨으로써 그의 시세계를 규명해내는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든다.

선행 연구에서 많이 논의되어 왔던 그의 시에서의 몸은 부정적 현실을 네거티브한 방식으로 폭로하는 방법적 도구만이 아니라, 그러한 부정적 현실조차 내면화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이 세계를 향해 자신을 열어놓는 형식이 된다. 김혜순의 시에서 이 세계와의 조응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하는 몸 사유가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형상화된 곳이 바로 ‘서울’⁴⁾이라 할 수 있다.

‘서울’을 소재로 하고 있는 많은 시편들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공간은 밀폐된 내부 공간이다. 지리학자 커스텐 시몬스는 현대도시는 ‘거울로 도배된 방’⁵⁾으로 꾸며져 있으며, 도시의 거대한 유리창(쇼윈도우)은 시선을 장악하며 여성의 나르시시즘적 자아도취와 자기소외를 준비시킨다.⁶⁾ 고 말하고 있다. 김혜순 시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유리문은 일정 부분 앞의 문장들의 의미를 배면에 깔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 갇힌 시적 화자의 의지는 사뭇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면 또 유리문이 나온다. 유리문
안쪽엔 출구라고 써어 있고, 바깥쪽엔 입구라고 써어 있

3) 한원근, 「한국 현대문학과 도시공간의 의미」, 『한국문예창작』14호, 2008, 12, 7면.

4) 심진경, 「김혜순 시의 미로에서 길을 잃다, 잃다, 잃다」, 『작가세계』, 2008 봄호, 57면.

5) Guy Debord, 이경숙 역, 『스펙타클의 사회』, 현실문화연구, 1996, 170-175면.

6) 김용희, 「김혜순 시에 나타난 여성 신체와 여성 환상 연구」, 『한국문학이론과비평』22집, 2004, 3, 312면.

지만 그러나 나가든 들어가든 언제나 너는 어떤 몸의 내부에 속해 있다. 마치, 난자를 만난 정자가 그녀의 집에 영원히 체포되듯 너는 거기에 속해 있다. 내부의 사람이면 누구나 유리문을 밀고 나가 또 하나의 유리문을 향해 걸어가야 하며, 그곳을 나와서도 또 하나의 유리문을 열어야 한다. 밤이 오면 어떤 유리문들은 네온사인을 달고 여기가 정말 출구예요 말하는 듯하지만 그러나 어디에도 출구는 없다.

(중략)

날마다 복선이 증가한다. 유리벽에 뭘 새길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너는 유리벽에 매달려 뭘가 새기려 하고 있구나. 꿈속에 있으면서 꿈속에 진령을 보내려고, 헛되이 허공중에 고운 얼굴을 새기고 있구나. 미로는 날마다 골목 끝에 유리문을 세운다. 이 몸을 깨뜨리고 어떻게 밖으로 나가지? 내 몸 밖에서 누가 나를 아직도 부르고 있는데…

— 「서울」 부분

이 시에 의하면 ‘서울’은 ‘유리문’으로 둘러싸인 ‘어떤 몸의 내부’이다. 그 몸은 개인적인 공간이자 객관화된 공간이기도 하다. 여러 인물들의 삶의 단면들이 특징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그 인물들은 ‘출구’가 없는 유리문의 내부에 갇혀 있을 뿐이다. 그래서 시인의 인식을 통해 묘사되고 있는 내부 공간은 “난자를 만난 정자가 그녀의 집에 영원히 체포되듯 거기에 속해 있”는 닫혀있는 한번 빠져들면 빠져나올 수 없는 ‘출구가 없’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다.

하지만 그 공간은 죽어있는 정적 공간이라기보다는 항상 출구를 찾기 위해 또 다른 “유리문을 향해 걸어가야”만 하는 동적 공간이다. 그러나 항상 밀폐되어 있는 그 공간의 끝은 절망적 ‘복선’으로 가득하다. 그 공간 안은 시 중반부에 나열되고 있는 “설탕병에 빠진 개미처럼”, “일생의 시간을 다 풀어내어 만든 실뭉치 속에 숨어든 파리처럼” 등의 직유를 통해 서울이라는 공간 속에서 삶의 출구를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을 불분명한 익명의 목소리를 통해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다. 결국 서울은 날마다 ‘유리문’이 세워지

는 삶의 ‘미로’이자 ‘미궁’, 그리고 ‘복선’이 가득 차 있는 소통되지 않는 심리적 내부 공간인 것이다.

차가 달려간다. 길 한중양을. 공중에서 내려다보면 숲 한중양을. 차가 달려간다. 차는 사면이 유리이다. 차가 달려간다. 유리 속으로 숲이 들어왔다 나간다. 어느 것도 오래 머물지 않는다. 유리 속에선 아무것도 오래 머물지 않는다. 머물렀다 생각하면 어느새 보이지 않는다. 차가 달려간다. 차는 앞으로 가지만 나무는 뒤로 간다. 차는 앞으로 가지만 강은 뒤로 간다. 차는 앞으로 가지만 너는 뒤로 간다. 차가 달려간다. 햇살 눈부신 아침, 햇살이 유리창에 닿거나, 유리창에 머무는 것처럼 행복한 아침, 길 한중양으로 차가 달려간다. 그런 아침 나는 너를 잠깐 본다. 나는 거울로밖에 너를 볼 수 없다. 차는 앞으로 가지만 너는 뒤로 간다. 잠시, 나는 너에게 말을 걸기도 한다. 이미지도 말을 한다. 거울 속의 네가 한동안 사라지지 않게 하려 나는 브레이크를 밟는다. 달리는 차 속에 잠시 꽃이 솟아오르는가. 차가 달려간다. 달려가면서 흔들린다. 돌이 튀어올라 심장을 텅텅 때린다. 어느 바람도 옷 속까지 들어오지 않는다. 바람은 차 밖에서만 분다. 차가 달려간다. 차 속에서 들리는 음악도 차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내 울음도 차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차가 달려간다. 차가 달려간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멈추면 눈알을 때리듯 망치로 유리를 때린 다음 한없이 녹슨 몸을 거대한 압착기로 네 모나게 눌러, 죽은 친구들의 몸 아래 실어 어디엔가 보내질, 그런 차가 아직도 달려간다. 길 한중양을. 언제나 숲을 만나면 머리채 휘날리며 뒷걸음치는 나무를 잡으려 소리치는, 차가 달려간다. 일평생을 달려도 하늘 한 방울 스며들지 않던, 그 차가 아직도 달려간다.

- 「서울 3느 9916」 전문

이 시의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화자는 여전히 밀폐된 ‘차’라는 공간 속에 갇혀 있다. 자동차는 공간과 공간을 연결시켜주는 도구이다. 또한 화자와 세

상을 소통시켜주는 도구이자 시적 장치이기도 하다. 하지만 소통의 도구인 차의 사면은 유리창으로 막혀있고, 유리의 특성이 그러하듯 보이면서도 서로의 내면을 전달할 수 없는 안타까운 소통 부재의 숙명적 삶의 한 단면을 그려보이고 있다. 그래서 차 안에는 세상의 풍경들이 ‘유리’라는 차단벽에 굴절되고 왜곡되어 화자의 내부 속으로 들어왔다 나갈 뿐이다. 차는 화자의 감정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앞을 향해 기계적으로 달려갈 뿐이고 마음속에 담아둘 풍경들은 언제나 뒤로 달아날 뿐이다. ‘강’도 ‘아침’도 ‘행복’도 ‘너’조차도 잠깐 머물다 사라져버리는 “거울로밖에 너를 볼 수 없”는 결국은 이미지로만 남은 도시의 풍경들을 밀폐된 소통 부재의 내부 공간 속에서 홀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평생 ‘서울’이라는 공간속을 헤매어 살면서도 ‘유리창’으로 상징되는 소통할 수 없는, 한 공간 안에 살면서도 공유할 수 없는, 한 몸이면서도 거울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는 시적 현실을 시인은 두터운 ‘유리벽’의 이미지를 통해 형상화내고 있는 것이다.

다음 시는 유리벽 안에 갇혀있는 서울의 모습을 더욱 심화시켜 표현함으로써 거대한 ‘방주’의 모습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노아는 술 처먹고 죽었는지 보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서울 방주는 아직도 떠 있었다 밤이 오고 또 심심해지면
 저 먼 바다를 향해 부아앙 경적도 울려보았다 점점 점 수
 위가 높아진다 하였으나 우리로선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었
 다 악취가 진동한다 경보음이 빠리릿 몇 번씩 울렸으나
 우리 코는 이미 마비된 지 오래였다 산소가 희박하다 하
 였으나 아직 선반 위의 방독면이 지급되진 않았다 언제
 비가 그치려나 나는 갑판을 붙들고 무료히 저 알지 못할
 깊이로 고개를 처박아 내려다보기도 했다 비둘기들이 갑
 판 밖으로 힘차게 날아가버리기도 했지만 고추씨 먹으러
 다시 돌아오고야 말았다 우리가 출항한 것 그 언제였던가
 갑판 위의 새들의 날개는 점점 퇴화돼갔다 비가 그치지
 않아 아기는 계속 태어나고, 갑판 위로 조그만 짐들이 울
 망졸망 위태롭게 매달렸다 그렇지만 배 위에 죽은 이를

들 수 없어, 시체는 모두 서울 밖으로 내던져졌다 서울
 에 무덤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저기 저
 아파트 곤돌라로 관 하나가 내려와 장의차에 실려 서울
 밖으로 떠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아무도 여기에서 죽어
 거름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지금 마약 떠난 사람의
 의자 뒤로 끝도 보이지 않게 선 사람들의 줄이 이어져 있
 었다 술 마시고 미친 차 한 대가 갑자기 뺏전을 떠났다가
 허방에 빠져 돌아오지 못했다

— 「서울의 방주」 부분

이 시에서 ‘서울’이라는 공간은 이제 거대한 하나의 ‘방주’가 되어 ‘허방’ 같
 은 세상을 표류하고 있는 곳이다. 이 거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거대 욕망에
 취해 타자와의 소통을 위한 경적을 울려보지만, 이미 거대도시는 서로의 소통
 을 위한 “산소가 희박”해지고 생존을 위한 마지막 도구인 ‘방독면’마저 지급
 되지 않는 “저 알지 못할” 각자의 내부 깊숙한 깊이로 위태롭게 빠져들고 있
 는 공간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방주’는 출항하지 못하고 퇴화해가는 본
 연의 임무를 잃어버린 공간이다. 그래서 그 공간을 매우며 살아가는 모든 존
 재들조차 배와 함께 퇴화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그려내고 있다. 그러면서도 힘
 들게 버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시적 현실이다. 그나마도 죽어버리면 그 공
 간(서울) 밖으로 ‘내던져’지기 때문이다. 날마다 새로운 세상을 향한 노력(“갑
 판을 수리하고”, “무대의 세트를 세우고”, “조망탑이 날마다 높아지고”)을 해
 보지만 여전히 삶의 ‘출구’는 보이지 않고 방주 안을 맴돌아야만 하는 안타까
 운 현실을 화자의 객관적인 시선과 진술을 통해 그려내고 있다. 사실 이 시에
 서의 화자는 시적 공간 안에 있지 않고 공간 밖에서 안을 조망하는 위치에
 서서 담담한 어조로 사건을 보고 진술하고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이 시의 전체적인 구성과 맞물리고 주제의식을 드러내는데도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앞의 시들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시인은 시의식을 시적 공간의 내부로 깊
 이 끌고 들어가 ‘서울’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내면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앞서 인용된 시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내부 공간은 대체로 폐쇄적이고
 밀폐된 나르시시즘적 공간들이다. 그 공간 속에서 시적 화자는 자기 안에 또

다른 나를 가두면서 바깥 세상과의 소통을 시도해보기도 하고 탈출구를 찾아 보기도 하지만 그 끝에는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마저 가두어버리는 거대한 ‘방주’가 죽음처럼 떠다니고 있는 공간으로 형상화시켜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인은 그 밀폐된 공간 속에서 타자나 새로운 세상을 향한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3. 소통 공간으로서의 ‘서울길’

시인은 다음 시에서 보는 것처럼 고립되고 단절된 세계로부터 빠져나와 세상 또는 대상과의 소통을 통한 화해로운 관계를 지향하는 시쓰기를 시작한다.

다음 시에서 진술하고 있는 것처럼 시인은 시적 대상이나 시적 공간을 단순히 시의식을 평면적으로 펼쳐놓는 도구적 대상이나 공간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시적 자아와의 간섭과 교감을 통한 일체화된 공간으로 만들어놓음으로써 시적 상상력과 생명력을 불어넣고자 한다. 또한 제도적이고 규범적으로 제한해내는 일방적 표현이 아니라 시적 공간과 대상을 시인이나 시적 화자, 그리고 시적 정황 등에 맞춰 쌍방향적으로 표현해내고자 노력한다.

내 마음엔 웬 실핏줄이 이리도 많은지요 이 실핏줄을
다 지나야 그곳에 당도하게 되겠지요

(중략)

가슴 밑 어두운 산을 뚫고 나도 모르게 굴이 뚫렸다는 소식도 전해들었어요 어디 계신지요 며칠 만에 시내에 나가 보면 아직도 포장도 안 뜯은 새 건물이 제본소에서 마약 도착한 신간 소설책 몽치처럼 부러지고 있어요 날마다 당신에게로 가는 길이 늘어나요 길 속에 길이 있어요 지금 막 도착한 저 빌딩의 몸 속을 좀 들여다보세요 층계와 층계 사이로 불끈 실핏줄들이 보이잖아요? 저 길을 언제 다 지나 당신에게 당도하지요? 서울이 서울을 낳아요 마음을 제 몸을 한껏 부풀려 또 마음을 낳아요 거기요 이삿짐을 가득 실은 차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또 실핏줄이 엉겨붙어요 셋길이 나요 발을 디더보지도 않았는데 또 길이 나요

언제 저 길을 다 뒤희 당신을 찾아내지요 당신이 보고 싶
어요

- 「서울길」 부분

앞의 시에서 ‘서울 길’들을 시적 화자의 ‘실핏줄’로 동일화시키면서 좀 더 세상과 한 몸이 되어 다가가고자 하는 시인의 의도를 심화시키고 있다. ‘서울 길’들은 객관적인 거리를 두고 관찰하는 공간이 아니라 내 몸 속의 일부가 되어 ‘실핏줄’처럼 소통하고 ‘엉겨붙는’ 길들이다. 그럼으로써 세상을 향한 내 마음 속의 또 다른 ‘셋길’을 만들고 그 길을 통해 보고 싶은 ‘당신’을 찾아가고자 한다. ‘나의 욕망이 만들어내는 길들은 너무 많아서 당신에게로 가는 길을 어렵게 만들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많은 길들이야말로 당신을 만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가능성⁷⁾이자, “서울이 서울을 낳”고 “마음이 제 몸을 한껏 부풀려 또 다른 마음을 낳는” 시적 화자의 끝없는 욕망을 만들고 키워내는 환상적 공간이기도 한 것이다. 그래서 화자는 서울과 내 마음에 실핏줄처럼 퍼져있는 “저 길을 다 뒤희”서라도 당신을 찾아내고자 하고 보고 싶어 하는 것이다.

다음 시는 앞의 시와는 다르게 황학동 벼룩시장 풍경을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세상과 다가가고자 하는 시인의 의도가 돋보인다.

신기료 할아버지 땡벌에 혼자 앉아 계신다
어휴, 저 많은 구두를 언제
서울 사람들이 신다 버린 구두를 남산보다 높이 쌓아놓고
밑창을 갈고, 새끈을 끼우고, 금단추를 달고, 무두질 하고
아이구, 저 구두는 원래 달렸던 것이 이제 하나도 남아있지 않구나
행려병자의 시신이었나 해부하고 나니 국물밖엔 없네
신기료 할아버지 새 구두를 만들어내고 있다
거짓말 같다, 새 구두가 남산보다 높이 쌓여간다

십 년이 지난 모터는 이제 다 닳아 녹이 더 많다
기침을 쿨럭쿨럭 하는 할아버지 기침을 쿨럭쿨럭 하는
기계 심장을 떼어내어 핏빛 페인트 국물에

7) 심진경, 앞의 글 59면.

침병 담갔다 꺼낼 때마다
새 무쇠 모터가 생겨난다
그 무쇠 모터가 천 길 땅속의 핏길을 모아
싱싱하게 땅의 체액을 퍼올릴 것 같다

텅 빈 두개골을 양 다리 사이에 하나씩 끌어안고
작업복 입은 청년 하나 머리칼 같은 전선줄을 심고 있다
그 앞의 또 다른 청년 하나 마주보고 앉아 뇌를 심고 있다
(중략)

수건 쓴 이줌마 둘이 다친 부처들의 숲속에 앉아 있다
부처들의 야전병원 같다
백시멘트를 맨손으로 으깨어
둘이 하나씩 부처의 귀를 붙이고 있다
손가락을 이어붙이고 미소를 그려붙이고
점도 하나 그려넣고 있다
애 아부진 거기 점이 있는디 말이야
잠시 이줌마의 육담이 이끌리다보면
분가루를 뒤집어쓴 부처가
손끝을 말아쥐는 것도 보게 된다
부끄러운 듯 두 발로 아랫도리를 가린 채

- 「황학동 벼룩시장」 부분

전체가 4연으로 이루어져 있는 앞의 시는 각 연마다 각기 다른 시장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1연에서는 구두를 고치는 신기료 할아버지, 2연에서는 모터 고치는 할아버지, 3연에서는 작업복 입은 전파사 청년, 4연에서는 수건 쓴 이줌마의 모습을 등장시키면서 각각 다른 4개의 시적 정황을 연결 시킴으로써 전체적으로는 ‘황학동’이라는 시장 풍경 속에 있는 인물 군상들의 구체화된 삶의 모습들을 옴니버스적 구도 속에서 희화적으로 묘사해내고 있다. 앞의 시 「서울길」이 주관적이고 환상적 기법을 통해 표현되었다면, 이 시는 보다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시적 공간과 대상에 접근하여 미적 거리를 확보해냄으로써 세상과의 소통의 거리를 좁혀보려는 시인의 의도가 엿보인다 하겠다.

다음 시는 ‘서울’이라는 시적 공간을 보다 객관적인 자세로 응시하면서 점묘하는 형식으로 형상화시키고 있다.

까만 쓰레기 봉지가 강변 포장마차 앞에 놓여 있다. 그 안으로 담배꽂초가 들어간다. 시들은 국화꽃이 구겨져서 들어간다. 코 푼 휴지가 들어간다. 된밥덩이가 들어간다. 남은 곱창이 쏟아진다. 국수 가닥이 말라비틀어져 들어간다. 지금 열차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은 안전선 밖으로 물러서주시기 바랍니다. 단발머리가 들어간다. 말장화가 들어간다. 백납같은 비구니 둘이 들어간다. 취한 얼굴이 트림을 테불고 들어간다. 문이 닫히려 할 때 아이 엮은 여자가 들어간다. 쓰레기 봉지 안으로 썩다 버린 껌이 들어온다. 사과 깻치가 들어온다. 까만 하늘의 별도 들어온다. 머리에 수건을 쓴 여자가 나와 봉지를 묶어놓고 들어간다. 생리대와 생선 대가리 사이에서 인공이 터졌다가 제풀에 사라진다. 몽게몽게 냄새가 섞이고 아이의 머리가 불끈 솟은 다음 울음 소리가 터져나온다. 까만 하늘엔 까만 별이 뜨고, 파아란 하늘엔 파아란 별이 뜬다. 승객을 모두 바꾼 을지로 순환 전철은 88분 후에 정확히 강변역에서 다시 멈춘다. 까만 쓰레기 봉지가 강변 포장마차 앞에 놓여 있다. 높이 뜬 역 구내로 생리대가 올라간다. 생선 대가리가 올라간다.

— 「강변 포장마차」 전문

이 시는 서울이라는 공간을 가장 상징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전철역의 풍경을 마치 녹화를 하듯 정밀하게 재현해내고 있다. 특히 이 시에 등장하는 ‘강변역’은 시외버스터미널과 연결이 되는 곳이기도 하다. 서울의 중심부를 순환하는 2호선과 그리고 각 지방과 서울이 교통하고 있는 공간이다. 즉, 이곳은 ‘서울’과 ‘지방’, 중심과 주변이 혼재하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그 공간은 바로 시적 화자나 시인의 마음속에 싹틔울처럼 산재해있는 공간이기도 한 것이다.

김혜순 시인의 시에서 자주 등장하는 배경 중의 하나가 지하철이다. 그 이유를 시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나의 경험 속의 대상이어야 나의 시적 대상이 되겠지요. 그럴 때 지하철은 하나의 세계, 하나의 우주죠. 지하철이란 것이 저와 섞일 수 있을 때, 그러니까, 관찰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나와 육체적으로 접촉할 수 있다고 느낄 때 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시적 대상은 외부적 존재로 바라보아질 것이 아니라 그 또한 내부를 가진 존재고 나 또한 외부와 내부를 가진 존재여서, 어딘가 접촉하면서 만나질 때 비로소 시적 대상이 되었다고 할 수 있지요.⁸⁾

인용문에서의 시인의 말처럼 지하철을 ‘하나의 세계’, ‘하나의 우주’로 보고, 순환하는 서울의 객관적인 모습들을 자신의 내부로 끌어들이면서 외부 세계와의 간섭과 접촉을 통한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 장에서 인용되고 있는 시들은 앞 장에서 인용된 시들에 비해 시적 공간이나 대상에 대한 시인의 소통 의지가 보다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객관적으로 대상을 관찰하고 그 공간이나 정황 속으로 화자의 의식을 이끌어감으로써 ‘서울’을 나만의 사적인 공간이 아닌 보편화된 공간으로 유도해내고자 한다. 일방적 통행이 아닌 쌍방향적 교감의 세계를 통해 시적 자아와 ‘서울’의 욕망 공간을 확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몸’과 ‘모래성’이 육화된 공간으로서의 서울

김혜순 시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 대 개인, 사물 대 사물의 구도 하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자아와 타자, 자아와 세계와의 관계를 하나의 몸의 구도로 설정하고 시적 대상이나 공간을 자아와의 합일화 동일화를 통해 또 다른 시적 구도와 형상을 만들어낸다는 데 있다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살아 숨쉬는 또 다른 시적 의미망을 구축해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시집 『나의 우파니샤드, 서울』에 등장하는 ‘서울’이라는 공간은 시인 또는 시적 화자와 교합되고 육화된 세계를 지향한다 하겠다.

몇 개의 산맥을 타넘어야
네게 이를 수 있니

8) 김혜순, 정과리 「참 많은 ‘나’들과 ‘너’들의 축연」, 『현대시』2000, 5월호.

(중략)

몇십 개의 계단을 올라야
잠든 너를 깨울 수 있니
저 혼자 불컨 엘리베이터를 타고
온몸으로 두근거리는 내가
잠든 너의 몸 속을
한밤중 소리도 없이 오르고 있다

- 「서울의 밤」 부분

이 시에서 보는 것처럼 ‘네게’로 가는 길은 ‘몇 개의 산맥을 타넘’고 ‘몇십 개의 계단’을 올라야 하는 길이다. 그런 후에도 “저 혼자 불컨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만 하는 길이다. 하지만 “네게 이를 수 있니”, “잠든 너를 깨울 수 있니”라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만남에 대한 확신을 유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적 화자는 결국 “온몸으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너의 몸 속을/한밤중 소리없이 오르고 있다”고 진솔함으로써 시적 공간과 한 몸이 되어 버린 또 다를 자아를 확인하게 한다.

앞의 시가 ‘서울의 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다음 시는 반자연적으로 무한정 확대되어가는 서울의 모습을 ‘홍부’ 모티브를 통해 형상화시키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모래성아 무너지지 말아라
하고 모래에 시멘트와 물을 섞고
철근까지 박은 집에
아이들이 자꾸 태어났습니다
더 이상 머리 둘 곳이 없게 되자
모래성이 그만 무너져주었습니다
이제 그는
모래성 밖으로 머리를 두고
잠들게 되었습니다
별이 못생긴 얼굴 위로 푹푹
떨어져 박혀주었습니다

품에 넣었던 그대를
 다시 품에 넣고
 그러기를 몇수천 년
 내 가슴 방이 흰하게 넓어졌습니다
 벽이 없어질 만큼
 그러자 그대는 아무 때나 기별도 없이
 불쑥 들어와 요 깔고 누워
 잠들었다 사라졌다 제 맘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내 방이 서울특별시처럼 마구 커졌습니다

— 「서울의 흥부」 부분

이 시에서 시인은 형식이 내용으로 바뀌는 한 계기를 거대도시의 괴물스런
 삶들의 교합에서 발견한다. 진정으로는 침투할 수 없는 어두운 공간이 가장 많
 은 슬픔과 가장 많은 고통과 가장 많은 욕망에 의해 가장 혼란된 공간으로 대
 체⁹⁾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자의 가슴 속에 '서울'은 어느새 '내
 가슴'과 '내 방'으로 기습적으로 침입해 들어와 버렸고, 결국에는 본인의 의지와
 는 아무 상관도 없는 왜곡된 욕망은 "아무 때나 기별도 없이" 내 방과 내 맘
 속에 들어와 '제 맘대로' '서울특별시'처럼 마구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욕망의 힘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나 방법은 없어 보인다. 이미 '서울'이라는
 공간과 '나' 사이의 칸막이는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벽'조차도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저 거대 도시의 거대 욕망과 함께 가는 길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그 길은 다음 시에서처럼 부정과 긍정의 이중적 의미를 함의하면서 하나
 가 되고자 한다.

바람이 내 안으로 들어왔다 그대 안으로
 들어가고, 다시 그대 숨이 내 숨으로
 들어오면 머리 위에서 신나는 풀들이
 파랗게 또는 새카맣게 일어선다 오오

— 「나의 우파니샤드, 서울」 부분

9) 황현산, 「《나의 우파니샤드, 서울》에 붙이는 몇 개의 사족」, 『현대시』, 2000, 5월호.

내 팔장을 끼고 그가 운다
밤비가 닦아놓은
길 위에
눈물이 덜 마른 그가 잠깐 서있다 사라진다
내가 찬찬히 닦여진다

- 「레인 피플」 부분

서울의 ‘바람’이 ‘내’ 안에서 다시 ‘그대’의 안으로 다시 ‘그대 숨’이 ‘내 숨’으로 들어와 ‘신나는 풀들’이 되어 “파랗게 또는 새카맣게 일어서”기도 하지만, 결국은 비 내리는 서울의 모습을 묘사해내고 있는 「레인 피플」에서처럼 ‘나’와 ‘그’는 물의 이미지를 통해 한 몸이 되고자 한다. 아니 그의 몸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는 존재가 되고자 한다. 그러나 그의 몸은 차가운 ‘빌딩’이고 저 멀리 있는 ‘롯데호텔’이다. 그 공간의 실체들은 이제 ‘모래기둥’처럼 길가에 무너져 내리고 끝내는 ‘내 팔짱’을 끼고 한 몸이 되고자 하는 ‘그’는 울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시적 자아와 ‘서울’은 한 몸이면서 한 몸이 아닌 겉과 속 또는 속과 겉의 내면을 흘러 내리는 무정형의 은유태라 할 수 있다.

김혜순 시인은 자신의 시적 사유를 시인이나 시적 화자에게만 한정시켜 투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적 대상이나 시적 공간인 ‘서울’속에 하나의 몸으로 교합하고 육화시켜 또 다른 낯선 의미망을 생산해냄으로써 ‘서울’이라는 시적 공간을 한층 복잡하고 상징적인 추상적 공간으로 만들어낸다. 시인이나 화자의 감정은 한 몸처럼 교차시키기도 하고 교감하게 하면서 자웅동체와 같은 시세계를 생성시킨다. 그러나 그의 시에서의 자웅동체는 언제나 전혀 다른 형태의 의미망을 만들어내고자 한다.

5. 맺음말

이상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혜순 시집 『나의 우파니샤드, 서울』에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시적 공간인 ‘서울’이 그의 시 속에서 어떻게 시적으로 형상화되고, 어떤 의미로 시화되고 있는 지에 대해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 탐구해 보았다.

첫째, 내부 공간으로서의 서울의 모습은 단순한 시적 의장(意匠)으로서의

공간이라기보다는 그의 시적 방법론에서 알 수 있듯이 시의식과 시인의 내면 의식이 밀착되고 일체화되어 살아가는 공간으로 사용됨으로써 그의 시세계를 규명해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소통 공간으로서의 서울의 모습은 시적 대상이나 시적 공간을 단순히 시의식을 평면적으로 펼쳐놓는 도구적 대상이나 공간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시적 자아와의 간섭과 교감을 통한 일체화된 공간으로 만들어놓음으로써 시적 상상력과 생명력을 불어넣고자 한다. 또한 제도적이고 규범적으로 재단해내는 일방적 표현이 아니라 시적 공간과 대상을 시인이나 시적 화자, 그리고 시적 정황 등에 맞춰 쌍방향적으로 표현해내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육화된 공간으로서의 서울의 모습은 김혜순 시의 가장 큰 특징인 개인 대 개인, 사물 대 사물의 구도 하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자아와 타자, 자아와 세계와의 관계를 하나의 몸의 구도로 설정하고 시적 대상이나 공간을 자아와의 합일화 동일화를 통해 또 다른 시적 구도와 형상을 만들어낸다는 데 있다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살아 숨쉬는 또 다른 시적 의미망을 구축해내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시집『나의 우파니샤드, 서울』에 등장하는 ‘서울’이라는 공간은 시인 또는 시적 화자와 교합되고 육화된 세계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 한국현대시사에서 다양한 실험 정신과 신선한 시적 전략으로 시세계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혜순 시인의 시세계를 ‘서울’이라는 시적 공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물론 시적 공간의 연구만으로 시인의 시세계를 독해해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를 통해 시인의 시적 공간을 좀 더 이해하고 시적 의미를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키워드 : 시적 공간, 내부 공간, 서울, 육화

〈참고문헌〉

- 김혜순, 『나의 우파니샤드,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4.
- 김혜순, 정과리, 「참 많은 ‘나’들과 ‘너’들의 축연」, 『현대시』, 2000, 5월호
- 김용희, 「김혜순 시에 나타난 여성 신체와 여성 환상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22집, 2004.
- 김화영, 『문학 상상력의 연구』, 문학동네, 1998.
- 심진경, 「김혜순 시의 미로에서 길을 읽다, 잃다, 앓다」, 『작가세계』, 2008, 봄호.
- 한원균, 「한국 현대문학과 도시공간의 의미」, 『한국문예창작』14호, 2008, 12.
- 황현산, 「《나의 우파니샤드, 서울》에 붙이는 몇 개의 사족」, 『현대시』, 2000, 5월호.
- Guy Debord, 이경숙 역, 『스펙타클의 사회』, 현실문화연구, 1996.

【Abstracts】

Poetic Space in Kim Hye-Soon's Poems

Park, Young-woo

Poetic space can be said to be a form of order given by the power of imagination. When poetic space is formed by imagination, imagination will act on it between a poet and an object. After putting an outer world into a poet's consciousness, he or she expresses it by the symbolic form through poetic space. Therefore, composing and organizing poetic space means not only providing it with certain function but also projecting life, material and breath into it.

This study searched for poetic space, Seoul which appears dominantly in Kim Hye-Soon's collection of poems, "My Upanishad, Seoul" and investigated how it is formed poetically by her poetic consciousness.

The body in Kim's poems, which has been discussed much in the preceding studies, is not only a means to show negative reality negatively but also a way to internalize such negative reality and paradoxically open her to the world. In her poems, 'Seoul' is the very space where her expression through bodies is embodied. 'Seoul' in her poems is the embodied space that inner space, space linked to the world, and the inner and outer world are incarnated.

It is specially noticed that 'Seoul' in her poems does not confide only critical opinion to the daily life of the modern city and the tyrannies and problems of capitalism, but enlarges the poetic messages that are

internalized in her self. Therefore, the poetic space in her poems is an abstracted place that people living normally in this era acknowledge awkwardly as well as the place where she herself actually lives.

keywords : poetic space, inner space, Seoul, incarnation

이 논문은 2009년 7월 27일에 투고되었으며, 2009년 8월 10일에 심사 완료되어 8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